



신간소식

鄭 駉謨, 韓國文獻記號表, 서울: 中央大學校圖書館學會, 1982, 56면, 값 3,500원(限定版 500책)

이 책은 編者가 初版을 펴낸지 10年만에 初版의 短點을 대폭 補完하고 아울러 다른 몇가지 著者記號表의 缺點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독자적이며 발전적인 새로운 記錄法을 고안하고자 시도한 「文獻記號表」이다.

이 文獻記號表는 ①한글로서 表記되는 人名으로서 가능한 項目 약 6천여개와 團體名 등 약 5천여 項目, 모두 11,115項目을 가나 다順으로 배열하고, ②項目의 첫글자가 「가」에서 「고」까지는 “교”, 「교」에서 「기」까지는 “구” 등으로 배정하여 첫째의 主記號를 「고구 노누 도두 로루... 호후」로 결정하고 ③각 主記號 밑에 아라비아 숫자 101부터 999까지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記號表를 구성한 것이다.

이 文獻記號表는 도서관에서의 이른 바 圖書記號로서 뿐만아니라 모든 文獻이나 記錄類 또는 필름이나 슬라이드나 기타의 非圖書資料의 정리를 위한 記號 등 다방면에 걸쳐서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金 南碩, 「圖書編目法」, 대구: 啓明大學校出版部, 1983, 4.6판, 286面, 값 8,000원

本書는, 著者가 1975年 「圖說圖書編目」을 著述한 이래 ISBD의 制定과 보급, 이에 따른 AACR2와 KCR3의 發行 등 國內外의 目錄分野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企劃되었다.

本書는, 最近에 발행된 諸規則을 모두 적용시켰으며 理解를 돕기 위해 각 例示圖書의 標題紙를 見本으로 提示하고, KCR2, KCR3 및 AACR2 세가지 형식의 見本카드를 동시에 提示, 相異點을 略述하였다. 따라서 各급 도서관의 編目司書를 위한 實務指針書로서, 學生들의 編目관계 專工書로서 活用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朴 俊植, 「參考調查論」, 대구: 啓明大學校出版部, 1983, 신국판, 350面, 값 5,300원

參考奉仕의 理念 및 調查方法論과 各種一般參考資料의 體系의 紹介를 目的으로 한 “參考調查論”이 出刊되었다.

本書는 신속히 변화하는 圖書館學의 추세에 부응키 위해 參考奉仕의 理論과 調查方法에 대한 最近의 研究成果를 反映하여 理論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으며 參考資料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各種參考資料에 대한 意義, 類型, 歷史的背景, 選擇과 評價法 등에 대한 論及과 最新의 代表的인 情報源에 대하여 간략하게 解說하고 있다.

本書는 모두 4部로 구성되어 있는데, 1部에서는 緒論, 理論과 發展 등을, 2部에서는 參考調查方法論을, 3部에서는 各種間接參考奉仕를 다루었다. 그리고 4部에서는 各種參考情報源에 대해 體系의으로 論及하고 있다